

소속된 위컴이다. 위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디아는 그에게 푹 빠져 있다. 위컴이 소속된 민병대 연대가 브라이튼(Brighton)으로 이동하자, 위컴은 그녀에게 같이 갈 것을 권한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아 미혼인 리디아가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의 묵인 속에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간다. 브라이튼으로 간 리디아는 부모의 간섭이 없게 되자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하여 위컴과 리디아는 사랑의 도피행을 떠난다. 미혼의 리디아가 위컴을 따라 브라이튼으로 간 것만으로도 집안의 큰 불명예인데, 그녀가 위컴과 함께 잠적해 버렸으니, 베네트 씨 가족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더구나 이같은 리디아의 분별없는 행동이 그녀의 미혼 자매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는 예사일이 아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결혼에도 불명예를 가져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리디아의 외삼촌인 가디너 씨(Mr. Gardiner)는 이 둘을 찾아내어, 다아시(Darcy)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 둘을 결혼시킨다. 또한 가디너 씨는 위컴을 현역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주선해 준다.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은 따라서 무모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리디아는 이성을 잃고 맹목적인 애정에 빠진 것이고, 위컴은 애정보다는 금전과 자신의 출세 때문에 리디아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 4. 확대 재생산으로서의 결혼: 엘리자베스의 문화 자본과 다아시의 경제 자본의 결합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이 소설의 주요 테마이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비하여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열세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애정에 의한 두 남녀의 결합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서 더 나아가 결혼이 확대 재생산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경제 행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의 결혼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엘리자베스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다아시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다아시 또한 이

같은 경제 체제에 속하기 때문에 결혼을 단지 애정에 의한 결합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일종의 이윤 확대를 위한 재투자자의 기회로 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통해 밀지는 장사(?)를 할 위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에게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결합은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이같은 자신의 경제적인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나 자신의 경제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경우 문화 자본이 경제 자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외형적인 자본인 경제 자본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빈약한 자신의 경제 자본을 문화 자본에 의해 보완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인 열세를 만회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문화 자본을 형성한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그녀의 문화 자본은 그녀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딸이기 때문에 당시의 영국의 상속법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 반면에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하비투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로부터 하비투스와 문화 자본을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자베스는 “그[아버지]의 상속인”(his heiress, Fraiman 377)이 된 셈이다. 이같은 그녀의 상속은 그녀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엘리자베스는 “그[아버지]의 세상으로부터 냉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습관, 사회의 비판자로서의 역할”(his ironic distance from the world, the habit of studying and appraising around him, the role of social critic, Fraiman 379)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이같은 가치관과 태도는 모두 긍정

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녀의 부모들의 결혼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베네트 씨는 아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같은 베네트 씨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그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그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엘리자베스의 의견이 가족 모두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녀는 부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안락에 관해 즐거운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젊음과 미에 현혹되어 또 이러한 젊음과 미가 흔히 지니는 외양적인 좋은 기분에 이끌려 어머니와 결혼했으나, 어머니의 이해가 부족하고 소견이 좁은 탓으로 결혼 초기에 이미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식어 버렸었다. 존경과 신뢰감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는 깨져 버렸다. (중략). 부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의 즐거움에 기여한 바가 없는만큼 그가 부인의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H]ad Elizabeth's opinion been all drawn from her own family, she could not have formed a very pleasing picture of conjugal felicity or domestic comfort. Her father, captivated by youth and beauty, and that appearance of good humour, which youth and beauty generally give, had married a woman whose weak understanding and illiberal mind, had very early in their marriage put an end to all real affection for her. Respect, esteem, and confidence, had vanished for ever; and all his views of domestic happiness were overthrown. . . . To his wife he was very little otherwise indebted, than as her ignorance and folly had contributed to his amusement. (162)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고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習性)는 비록 그녀가 처음에는 다아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는데는 방해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같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비판 의식에 힘입은 것이다. 다아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녀가 가진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에 있으며, 이같은 그녀의 판단 능력은 그녀의 가정 교육인 하비투스(習性)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다아시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이 아주 나빴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둔다면 그녀의 이같은 태도는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보게 되는 계기는 댄스파티에서이다. 이 댄스파티에는 빙리와 다시가 모두 나타났는데, 빙리는 부드럽고 친절한 반면에 다시는 거만하고 뻣뻣한 인물로 묘사돼 있다. 다아시는 자신이 아는 여자가 아니면 같이 춤을 추자고 제의조차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게는 초면이기 때문에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추자는 제의를 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다시의 행동은 엘리자베스에게는 커다란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다아시의 성격은 그의 이러한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거만한데다가 그들과 함께 즐기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더비셔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의 기분 나쁜 용모가 그의 친구인 빙리 씨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평판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 (중략). 그의 성격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거만하고 가장 기분 나쁜 인물이었으므로 모두들 그가 거기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H]e was discovered to be proud, to be above his company, and above being pleased; and not all his large estate in Derbyshire could then save him from having a most forbidding, disagreeable countenance, and being unworthy to be compared with his friend [Bingley]. . . . His character was decided. He was the proudest, most disagreeable man in the world, and every body hoped that he would never come there again. (6)

위에 나온 묘사에서 다아시가 극단적으로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이라는 사실은 최상급으로 표현된 그의 성격의 결함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다시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그의 행동거지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혐오와 선호의 감정은 사실상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다아시를 이처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그녀의 다아시에 대한 기대감이 배반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그에 대한 혐오감이 시기심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의 시선을 의식한 엘리자베스는 그가 단지 대수롭지 않은 혐오의 인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남자”(great a man)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기가 그런 훌륭한 남자의 찬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자기에게는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다아시가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에 대한 생각에 비취 볼 때 잘못 되고 눈에 거스리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의를 끈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자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가 다아시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She hardly knew how to suppose that she could be an object of admiration to so great a man; and yet that he should look at her because he disliked her, was still more strange. She could only imagine however at last, that she drew his notice because there was a something about her more wrong and reprehensible, according to his ideas of right, than in any other person present. This supposition did not pain her. She liked him too little to care for his approbation. (35)*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한 선입관을 수정하게 된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선입관을 수정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녀의 이같은 열린 마음은 가정의 하비투스에 의해 형성된 문화 자본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아시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차츰 수정해 감으로써 그녀에 대한 불호(不好)의 감정이 차츰 차츰 호감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수정의 계기는 위컴에 대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견해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위컴이 상냥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품위있고 성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녀는 위컴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다아시가 거만하고 신뢰성이 없는 인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로부터 위컴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다아시가 하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아시에 대한 생각을 새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낀다.

엘리자베스는 좀 더 정신차려 [편지를] 읽었다. 그러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컴이라는 인물의 훌륭함에 대해 그녀가 품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위컴 씨 자신이 말한 그

의 신상에 대한 놀라운 호감을 뒤엎어 버려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몹시도 아팠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는 공포의 전율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것은 거짓말에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야!”라고 거듭 외치면서 이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에는 마지막 한두 페이지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미처 그 뜻도 파악하지 못한 채 급히 편지를 접어 놓으며, 이 편지에 마음을 쓰지 말자고, 다시는 이 편지를 보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W]hen she read [the letter] with a somewhat clearer attention, a relation of events, which, if true, must overthrow every cherished opinion of [Wickham's] worth, and which bore so alarming an affinity to his own history of himself, her apprehension, and even horror, oppressed her. She wished to discredit it entirely, repeatedly exclaiming, "This must be false! This cannot be! This must be the grossest falsehood!"---and when she had gone through the whole letter, though scarcely knowing any thing of the last page or two, put it hastily away, protesting that she would not regard it, that she would never look in it again. (141)

그녀는 다아시의 편지를 이제 멀찌감치 놓고는 그녀와 위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한 행동과 말에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 본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를 이모부 댁에서 처음 만나던 날 저녁에 그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말씨까지도 생생히 기억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제서야> 초면의 사람에게 그러한 대화는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그가 했던 야비한 행동과 언행의 불일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위컴 씨가 다아시를 만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것, 오히려 <자기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다아시 씨가 네더필드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던 것,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네더필드에서 열렸던 무도회는 피했던 사실을 상기했고, 또 네더필드 일가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위컴 씨가 자기 이야기를 그녀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다가 그들이 떠난 뒤에야 그의 이야기가 모든 곳에서 논의되었다는 것과, 그가 다아시 씨의 부친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이 다아시 씨의 비행을 세간에 폭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으면서도, 다아시 씨의 인격을 깎아 내리는 데에는 사양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위컴 씨에 대한 모든 일이 이제 와서는 왜 이처럼 사뭇 달라 보이는지!

She perfectly remembered every thing that had passed in conversation between Wickham and herself, in their first evening at Mr. Philip's. Many of his expressions were still fresh in her memory. She was *now* struck with the impropriety of such communications to a stranger, and wondered it had escaped her before. She saw the immediacy of putting himself forward as he had done, and the inconsistency of his professions with his conduct. She remembered that he had boasted of having no fear of seeing Mr. Darcy--that Mr. Darcy might leave the country, but that *he* should stand his ground; yet he had avoided the Netherfield ball the very next week. She remembered also, that till the Netherfield family had quitted the country, he had told his story to no one but herself; but that after their removal, it had been every where discussed; that he had then no reserves, no scruples in sinking Mr. Darcy's character, though he had assured her that respect for the father, would always prevent his exposing the son.

How differently did every thing now appear in which he was concerned! (142-143)

이처럼 꼼꼼히 따져 보고 난 후 그녀는 위컴이 처음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그녀의 마음 자세는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바꿀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다아시 씨든 위컴 씨든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녀는 자기가 우매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을 가졌었고 어리석었음을 통감했다.

“내가 정말로 치사하게 행동했네”하고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안목이 있다고 뽐내던 내가 아니었나! 재능이 있다고 허영심에 들떠 있던 내가 아니었나! (중략). 한 사람의 편애에 기뻐하고 다른 한 사람의 무시에는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귄 때부터 나는 편견과 무지를 사모했고 두 사람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구나.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She grew absolutely ashamed of herself.--Of neither Darcy nor Wickham could she think without feeling that she had been blind, partial, prejudiced, absurd.

"How despicably have I acted!" she cried.---"I, who have prided myself on my

discernment!--I, who have valued myself on my abilities! . . .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r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 (143-144)

한편 다아시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 소설의 종결 부분에 이르러 다아시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건방지게 행동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꽤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배웠어요. 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충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훌륭한 가정 교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배운 가정 교육의 원칙들을 [겸손하게가 아니라] 거만하고 자만심이 가득찬 마음으로 실행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외아들로 태어나서 (몇 해 동안 동생이 없이 <외아들>이었죠) 나는 부모들에 의해 버릇없이 키워졌어요. 부모님들은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셨지만 (특히 아버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친절하셨죠) 저의 이기적이고 거만한 행동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아 주고 장려해 주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집안 식구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쁘게 <생각하려> 했는데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식견과 가치가 제 자신에 비하면 못하다는 뜻이지요. 여덟 살 때부터 스물 여덟이 된 오늘까지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I have been a selfish being all my life, in practice, though not in principle. As a child I was taught what was *right*, but I was not taught to correct my temper. I was given good principles, but left to follow them in pride and conceit. Unfortunately an only son, (for many years an only *child*) I was spoilt by my parents, who though good themselves, (my father particularly, all that benevolent and amiable,) allowed, encouraged, almost taught me to be selfish and overbearing, to care for none beyond my own family circle, to think meanly of all the rest of the world, to *wish* at least to *think* meanly of their sense and worth compared with my own. Such I was, from eight to eight and twenty. (254)

이같은 다아시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자신을 질책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잘못된 부모와 가정 교육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책임



회피는 그가 책임감있고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다이시보다 더 성숙한 인물임을 실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엘리자베스와 다이시 모두 자신들이 자란 가정 환경에서 오는 하비투스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자기 검증을 거친 후 엘리자베스와 다이시는 서로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해소하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이들의 결혼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결말은 아니다. 물론 이들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레이디 캐서린의 결정적인 실수(?)가 계기가 된 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이같은 실수가 이들을 결혼으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레이디 캐서린의 이같은 실수는 단지 이 소설에 나오는 문학적인 장치일 뿐, 그때 쯤에는, 이 둘을 가로막고 있던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혼은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가장 많은 경제적 자산을 보유한 다이시가 가장 많은 문화 자본을 가진 엘리자베스와 자본 통합을 하는 경제적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경제 활동이며, 이러한 경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생산의 극대화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다이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바로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이루어진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의 경제 자본이 아닌 문화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이를 경제 자본의 차원으로까지 높였다는 의미에서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연애 소설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어떻게 자본 형성의 원칙을 따르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더구나 이제껏 이 소설 읽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던 문화 자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측면에서 부르디외의 새로운 이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 인용한 문헌

-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Criticism*. Ed. Donald Gray. New York: Norton, 1966.
- Brooker, Peter. *A Concise Glossary of Cultural Theory*. London and New York: Arnold, 1999.
- Bourdieu, Pierre.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Ed. and Intro. by Randal Johnson. New York: Columbia UP, 1993.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Bourdieu, Pierre. "Postface." In Erwin Panovsky, pp. 135-167.
- Bourdieu, Pierre, and L. Wacquant.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92.
- Evans, Mary. *Jane Austen and the State*. London: Tavistock, 1987.
- Fraiman, Susan. "The Humiliation of Elizabeth Bennet." In Gray, pp. 376-384.
- Grey, J. David, A. Walton Litz, and Brian Southam, eds. *The Jane Austen Companion*. New York: Macmillan, 1986.
- Panovsky, Erwin. *Architecture gothique et pensée scolastique*. Paris: Minuit, 1967.
- Swartz, David. *Culture and Power: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U of Chicago P, 1997.
- Teachman, Debra, ed. *Understanding Pride and Prejudice: A Student Casebook to Issues, Sources, and Historical Documents*. Westport, CT: Greenwood, 1997.

## ABSTRACT

### Raising the Value of Dowry by Cultural Capital: The Capital in *Pride and Prejudice*

Chong-Ho Lee

Jane Austen is a great story teller, and the theme of her novels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concerned with the complicated courtship between young women of lower class and men from the affluent class. Readers of her novels, therefore, do not generally expect much except the unravelling of the courtship process. This kind of simplified understanding of her novels, however, is no more than a very superficial interpretation of her novels. The fact that her novels do not very much go beyond the family situations is considerably contributing to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 theme of her novels. There is more to her novels than this.

Even though Austen mainly describes domestic circumstances in her novels, we should not be fooled into thinking that she is mainly concerned with courtship process in her novels. What I am trying to demonstrate in this essay is that under the seemingly simple and unproblematic descriptions in her novels we could find the complicated and dynamic workings of the capital. We can see this very clearly in her *Pride and Prejudi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capital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Pierre Bourdieu means by habitus and cultural capital. Bourdieu defines habitus as "the system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d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What he means is that habitus is the generating principle of behavior embodied in the unconscious. The habitus,

therefore, is the invisible basis of the cultural capital, which Bourdieu maintains is as important as economic capital. Cultural capital can be defined as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ccomplishments, formal and informal qualifications by which an individual may gain entry and secure a position in particular social circles." By inheriting the habitus from her father and accumulating cultural capital all by herself, Elizabeth gains acceptance by and eventually marries Darcy. This marriage, however, is not simply a marriage of hearts only. What is important is that Elizabeth has raised the value of her own meager dowry by cultural capital. Her marriage, in this sense, is also the marriage of capitals: the monetary capital of Darcy and the cultural capital of Elizabeth. The marriage as merger of these two different kinds of capitals makes it economically sound and secure for both parties involved and there is plenty of indication that it will be viable on a sound basis in the future.